

다시 도는 '축구 시계'...FA컵 5월중 무관중 경기로 시작

올해부터 대학팀 불참으로 60팀 출전 대회 8라운드서 7라운드로 줄어 K리그도 5월 둘째주 개막 목표 준비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멈춰선 대한민국의 '축구 시계'가 다시 돌기 시작한다. 프로축구 K리그가 5월 둘째 주 개막을 목표로 준비에 나서자 대한축구협회(FA)도 3월에 개막하려던 코로나19 여파로 미뤄진 FA컵 1라운드 일정을 5월에 무관중 경기로 시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21일 "프로축구 개막 일정이

구체화한 만큼 FA컵도 이에 맞춰 개막 준비를 시작할 계획"이라며 "라운드별 상세 일정은 한국프로축구연맹과 함께 협의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FA컵은 3월 14일에 K3~K5리그 32개 팀이 나서는 1라운드가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무기한 연기됐다. 코로나19 상황을 주시해온 축구협회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야외 스포츠도 무관중 경기와 같이 위험도를 낮출 수 있으면 가능하다"고 발표하면서 FA컵 개막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이미 지난 2월 대진표까지 나온 터라 축구협회는 K리그 일정을 고려해 새로운 경기 날짜를 정하는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다만 아직 코로나19 집단 감염 위험성이 있는 만

큼 1라운드는 무관중 경기로 시작한다는 게 축구협회의 원칙이다. 한편, 2020년 하나은행 FA컵은 큰 변화가 생겼다. 올해 FA컵에는 K리그1 12팀, K리그2 10팀, K3리그 16팀, K4리그 11팀, K5리그 11팀을 합쳐 총 60팀이 출전한다. 작년까지는 K리그1, K리그2, K3리그와 성적이 우수한 대학팀 및 직방팀이 FA컵에 출전했지만 올해부터 대학팀이 참가하지 않게 돼 참가팀도 86팀에서 60팀으로 줄었고, 8라운드로 진행되던 대회도 7라운드로 바뀌었다. 결승전 날짜는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에 나서는 전북 현대, 울산 현대, FC서울, 수원 삼성의 성적을 고려해 결정된다. /연합뉴스



프로축구 K리그가 5월 둘째 주 개막을 목표로 준비에 나서자 대한축구협회(FA)도 코로나19 여파로 미뤄진 FA컵 1라운드 일정을 5월에 무관중 경기로 시작하겠다는 뜻을 21일 밝혔다. 사진은 2020 하나은행 FA컵 대진 추첨식 장면. /연합뉴스

창단 10주년 광주FC '역대 베스트 11' 뽑는다

27일까지 팬 투표로 선정

박기동·정조국·나상호 등 후보에

광주FC가 창단 10주년을 맞아 '역대 베스트 11 선정 이벤트'를 연다. 광주는 21일 "창단 10주년을 맞아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를 팬들이 직접 선정하는 역대 베스트 11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K리그 16번째 시민구단으로 창당한 광주의 역사에 한 획을 그은 11명을 직접 선정해

선수, 구단 간의 추억을 소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후보는 창단 첫 시즌인 2011년부터 2019년까지 광주 소속으로 30경기 이상 출장한 선수들로 구성됐다. 광주의 '초대 캡틴'이자 역사적인 개막 첫 골을 장식한 박기동을 비롯해 김호남, 이종민 등 구단 간판선수로 활약한 이들이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리그 3관왕'에 빛나는 정조국과 나상호 등 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은 스타 선수들도 포함됐다. '월클럽맨'으로 올 시즌 주장 완장을 차는 여름과 여봉훈, 윤명국 등 현 소속 선수들도 후보로 선정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투표는 오는 27일 정오까지 광주 구단 공식 홈페이지(gwangjufc.com)를 통해 진행된다. 광주를 사랑하는 팬이면 누구나 '역대 베스트 11 선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한 아이디 당 1일 1회에 한해 중복 투표할 수 있다. 광주FC 관계자는 "창단 후 많은 선수들이 팬들과 영광의 순간을 함께했다. 역대 베스트 11 선정을 통해 추억을 소환해보고자 기획했다"며 "역사적인 10주년인 만큼 팬들과 더 다양한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여자농구 우리은행, FA 최대어 박혜진과 4년 재계약

연봉 3억에 인센티브 별도

여자프로농구 아산 우리은행이 자유계약선수(FA) 최대어로 꼽힌 박혜진(30)과 4년간 재계약했다. 우리은행은 21일 "2008년 우리은행에서 데뷔한 박혜진과 2024년까지 4년간 FA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로써 12시즌간 6년 연속 통합 우승을 일궈낸 주역 박혜진은 15년간 우리은행 유니폼을 입게 됐다"고 발표했다. 계약 조건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현재 여자농구 연봉 최대 금액인 3억원을 받는 것이 확실시된다. 인센티브 등은 별도다. 박혜진은 이번 시즌 27경기에서 평균 14.7점을 넣고 5.4어시스트, 5.1리바운드를 기록하며 최우

수선수(MVP)에 선정됐다. 정규리그 MVP를 5차례나 수상해 여자농구 사상 두 번째로 많은 정규리그 MVP 수상 횟수를 기록 중이다. 통산 최다는 7번 수상한 정선민 전 인천 신한은행 코치다. 박혜진은 구단을 통해 "신인 시절부터 함께 한 우리은행에서 다시 될 기회를 주신 권광석 구단주님께 감사드리며 협상 기간 많은 관심을 갖고 기다려주신 팬분들께도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그동안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더 발전한 모습으로 한국 여자프로농구의 새 역사를 쓰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우리은행은 역시 FA 자격을 얻은 김정은, 홍보람과도 재계약을 체결, FA로 인한 전력 유출 없이 2020-2021시즌을 준비하게 됐다. /연합뉴스



박혜진

기금 조성 위해 팔·다리 털 깎고...PGA 선수들 기부활동 계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극복하기 위한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선수들의 기부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 트위터상에서 유명과 장난으로 인기를 끄는 맥스 호마(미국)는 팔과 다리의 털을 모두 깎는 이색 공약으로 기금을 모으기도 했다. 21일(한국시간) PGA 투어에 따르면 호마는 미국 전역의 푸드뱅크에 4만달러(약 50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팔과 다리의 모든 면도한 사진을 트위터에 올렸다. 호마는 "우리가 힘을 보태 식사의 가치를 생각하면, 면도를 한 2시간이 아깝지 않았다"며 "단 한 개의 면도기도 부러뜨리지 않았고, 이제 더 빠른 스피드로 스윙 할 수 있다"고 글을 올렸다. 그는 "콧수염은 남겨 놓아 겨우 나를 알아볼 수

있었다"며 너스레를 떨었다. 작년 US오픈 챔피언 게리 우들랜드(미국)는 고향 미국 캔자스주의 토피카의 비영리단체 8곳에 자신의 재단 이름으로 10만달러(약 1억2000만원)를 기부했다. 2019 프레지던트컵 인터내셔널 팀 단장 어니 엘스(남아프리카공화국)는 미국 뉴저지의 골프장이 지역 병원의 응급 의료 요원들에게 음식을 지원하는 데 힘을 보탤다. PGA 투어에서 통산 5승을 거둔 마크 리슈먼(호주)과 아내 오드리는 자신들의 'Begin Again 재단'을 통해 코로나19와 싸우는 지역병원의 의료진들에게 음식과 물품을 지원했다. 아내 오드리는 5년 전 패혈증과 독소 충격 증후군으로 생사를 넘나들었다가 생명을 건졌다. /연합뉴스

광주 서구체육회장 29일 재선거 '제동'

법원, 박재현 당선자 가처분신청 인용 서구체육회, 본안 소송 여부 검토

법원이 광주 서구체육회장 재선거에 제동을 걸었다. 광주지법은 최근 광주 서구체육회장으로 선출됐던 박재현 당선자가 서구체육회를 상대로 제기한 '광주 서구체육회장 당선무효 결정 효력정지'와 재선거 실시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인용했다. 박재현 당선자의 지위가 인정되며, 본안 소송의 판결 확정전까지 재선거를 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 치러질 예정이었던 체육회장 재선거를 실시할 수 없게됐다. 서구체육회 선관위는 지난 3월 5일 '후보자격 시비' 논란이 일었던 박 당선자에 대해 '후보 자격 부

적격' 결정과 함께 당선을 무효로 하고 오는 29일 재선거를 치르기로 결정했다. 박 당선자와 함께 선거에 출마했던 박종석 후보가 '박 당선자가 지난 1997년 광주시체육회 재직 중 업무상 배임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받아 후보 자격에 결격 사유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자 이를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박 당선자는 이에 대해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1997년도의 벌금형 300만원형은 확정 판결 2년이 경과돼 형이 실효된 관계로 사면복권됐기에 후보자격 및 당선인 자격에 문제없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도 같은 취지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이 박 당선인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광주 서구체육회는 상임위원회와 이사회, 대의원 총회 등을 차례로 열고 본안 소송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도체육회, 대학생 명예기자 선발



생생한 스포츠 현장 소식 전달 전남도체육회는 다양하고 생생한 스포츠 현장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대학생 명예기자를 선발했다. <사진> 전남도체육회는 최근 전남체육회관에서 2020년도 전남도체육회 대학생 명예기자 선발 면접을 진행하고 최종 합격자를 발표했다. 이들은 오는 24일, 전남도체육회관에서 발대식을 열고 5월 1일부터 올해 12월 말까지 전남 각 지역의 스포츠 현장에서 미담 사례 등을 수집, 전남체육회

SNS를 통해 생동감 있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도체육회는 좋은 기사를 제공한 명예기자를 포상할 방침이며, 지속적인 활동을 한 명예기자를 대상으로 12월 중 수료식 및 우수 명예 기자 시상식을 연다. 전남도체육회 김재우 회장은 "대학생들의 특목 특위는 아이디어와 참신한 콘텐츠 아이템으로 생활 체육 및 스포츠 7330 캠페인은 물론 전남체육을 전국에서 가장 널리 알릴 줄 것이라 믿고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LOTTE CINEMA | 중랑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2관	오픈 더 도어
3관	언어의 정원, 1917, 오픈 더 도어
4관	라라랜드
5관	라라랜드, 1917
9관	1917, n번째 이별중, 레터스 투 줄리엣
7관	씨네카를 서치 아웃
8관	씨네카를 서치 아웃, 미드나잇 선, 그녀의 비밀정원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기획전시 **강남구 (화양연화)**
2020.4.10(금) ~ 5.10.(일)
광주문화예술회관 갤러리

기획공연-11시 음악산책 **유영욱의 베토베니즘**
4.29.(수) AM 11:00
광주문화예술회관 유튜브 생중계

기획공연 포커스 II-봄의 세레나데 **Spring of Serenade**
2020. 5.12.(화) PM 7:00
광주문화예술회관 유튜브 생중계

즐거움 **문화산책**

언어의 정원

4월 22일 대개봉!